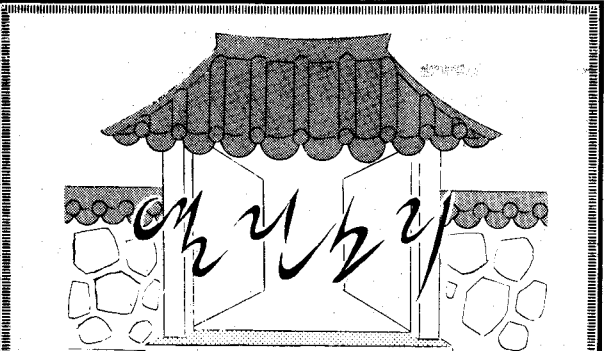




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대학주보에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200자 원고지 4매 하이텔(ID): KHUNews
◇보낼 곳: 서울·수원(본사편집실) / 천리안(ID): KHUNews

선부른 학부제 시행 단계적 통보 아쉬워

얼마전 우리학교를 비롯한 모든 대학들이 97학년도 신입생 모집전형내용을 발표했고 발표내용은 각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나 또한 신문지상을 통해 전형내용을 접할 수 있었는데 우리학교의 모집 내용중 한가지가 날 당혹스럽게 했다.

그것은 다름아닌 학부제의 본격 도입이었다. 사실 신문을 통해 알기전에는 나뿐 아니라 내 주위의 학우들도 우리와 뿐 아니라 그렇게 많은 학교들이 학부로 통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못했으니 당황하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물론 신입생에 해당하는 내용이니 재학생으로서 신경쓸 필요가 무어 있겠느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고

본다. 대학이라는 곳은 학문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의 사회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과에 적합한 학업도 중요하지만 자기 가 속한 과사내 내지는 학교전체의 변화라든가 움직임을 알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학부제 사안은 그동안 학생회측과 학교측의 의견이 분분해 왔던 사안이므로 더욱욱 결정의 과정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본다.

97학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새롭고, 새 풍경이 또 한번 새로운 얼굴들로 꾸며질 것이다.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그렇기에 그 새로운 얼굴들이란 선포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당연히 기다려지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새학기, 새본엔 그런 기대를 한풀 꺾을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솔직히 언젠가는 학부제가 운영될 것을 예감했다. 하지만 그 예감을 이렇게 빠른 시일내에 받아들이고 한껏 가져왔던 기대를 단숨에 꺾어버리니 섭섭하다.

상세하고 단계적인 학교측의 통보가 뒤늦게나마 아쉬울 따름이다.

강 동 윤
(문리대 물리1)

시간활용위한 PC통신 전산실에도 연결해주길

현대는 컴퓨터시대라고들 한다. 그만큼 컴퓨터는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 대학에서도 과제를 손으로 쓰는 형식에서 탈피해 워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컴퓨터가 보편화되면서 '인간성 상실'이라는 측면의 단점도 문제시되긴 하지만, 바쁜 현대인의 생활에 적절한 도움이 되어 준다라는 장점도 있다.

우리 학교는 96학년도 신입생들에게 천리안 매직콜 개인 ID를 지급했다. 처음엔, '나에게도 ID라는 게 생겼구나'하는 생각에 참 신기하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까지 생겼었다.

그러나 ID가 생기고서도 막상 이용해보려 하니 절차가 복잡했다.

집에서 PC통신을 이용하려면 PC통신용 프로그램을 새로 깔아야 하는데 생각보다 그 비용이 너무 비쌌다. 그리고 주위 친구들 말로는 집에서 PC통신을 이용하면 전화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모님 눈치를

보여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한다.

대다수의 대학들은 학내 전산실에서 PC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공강 시간이면 커피전문점에 들어가 차 마시며 수다 떨거나 당구장에 가서 당구 몇 게임 치다 나오는 무료한 일상사에서 벗어나 통신을 이용해 '문화생활'을 만끽한다고 자랑하는 친구도 있다.

통신에 들어가보면 많은 자료가 있으며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사회여론도 충집결과되어 있으며, 이젠 신문, 잡지, TV의 기능도 모두 PC가 해낸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ID를 지급했다는 것은 학교가 PC통신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학교 전산실에서도 PC통신이 가능하도록 학교가 어떤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강시간을 '시간 때우기'식으로 아무렇게나 보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있어 생각의 폭을 넓히고 여러세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일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의 전담 'PC통신'의 문화를 학내에서도 맛 볼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유 학 찬
(국문 1)

강제판매적 복사카드
시급한 개선판매 필요

시험도 다가고 레포트 낼 일도 빠듯한 요즘,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다녀야 할 일이 잦아졌다.

얼마전엔 논문자료실에 들어가 자료를 찾을 일이 있었다. 그리고 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가본 지가 오랜만이라 방식이 바뀐 줄 몰랐다.

예전엔 학생증을 맡기고, 복사실에 가서 복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논문자료실에 복사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그 곳 직원에 의하면 "복사카드가 있어야 복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경대에는 복사카드가 무용지물이다. 복사카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카드를 사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강제판매"나 다를까다. 몇백 원도 아닌 5천원짜리 복사카드를 한번의 복사를 위해 사자니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생각에 분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 복사카드가 쓰이고 있는 곳은 도서관 복사실과 사법대, 의대, 인권복지위원회, 논문자료실 등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많이 출입하고 있는 정경대에는 복사카드가 쓰여지지 않는다.

전화카드, 버스카드 등등 별별 카드가 다 생겨난 요즘은 복사카드가 편리하고 보다 저렴한 이점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것은 학생마다 다른 것이다.

논란 한편 복사에 5천원 너무 많지 않은가.

천리안 ID : KFOXY

TELNET
FTP

인터넷의 첫걸음

-TELNET, FTP의 이용방법



성 연 중
(전자계산학과 석사4기)

글 실 는 순 서

1. LAN이란 무엇인가
2. 학교 네트워크와 전산실의 구성
3. telnet, ftp의 활용
4. Netscape의 설치와 활용

터통신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모르게 TELNET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TELNET이란 원격접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른바 문자기반의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다.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천리안, 하이텔을 생각하면 된다. 집에서 천리안, 하이텔을 이용하기 위해선 모델을 설치하고 전화를 걸어 사용한다. 이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이야기'라든가 혹은 비슷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다.

TELNET과 FTP는 윈도 95에서 기본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터미널 에뮬레이터'라고 불리는데 바로 telnet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른 것인 telnet은 랜을 이용한다는 것이고 '이야기'는 모델을 이용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다. telnet을 이용하기 위해선 간단히 윈도95에서 '시작'-'실행'을 누르고 여기서 'telnet'이라고 입력하면 된다. 다음에 연결할 곳의 주소를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 몇가지를 소개한다.

천리안 : chollian.net
하이텔 : hitel.net

나우누리 : nowcom.co.kr

천리안의 경우 우리학교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려면 주소를 'pc-serve'라고 넣으면 된다. 하지만 이곳은 속도는 빠르지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FTP는 자료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요즘은 WWW 서비스를 통해서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FTP를 많이 이용하였다. FTP는 사용법이 까다로워서 조금은 이용하기가 곤란하다. 하지만, 네트스케이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네트스케이프가 있는 사람은 네트스케이프를 실행하고, 주소 입력란에 'ftp://'라고 맨처음 쓰고 해당하는 곳의 주소를 쓰면 된다. FTP를 받으려면 해당하는 주소에 ID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anonymous라는 ID를 제공한다. 네트스케이프인 경우는 anonymous라는 ID로 자동접속해 주는 편리한 기능이 있다. 따라서 별다른 작업 없이 앞서 말한대로 주고 입력창에 'ftp://'라고 시작하면 된다.

네트스케이프가 없는 사람은 윈도95에 있는 ftp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윈도95의 '시작'-'실행'을 누르고 여기에 ftp라고 입력하면 된다. 이 ftp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단순히 도스 프롬프트와 비슷한 화면이 나오는데, 기본적 인 명령은 다음과 같다.

open : 해당하는 곳의 주소를 연다.
bye : ftp를 끝낸다.
get : file을 받는다.
put : file을 보낸다.
binary : file을 binary로 주고 받는다.

이번엔 인터넷 서비스중 가장 기본이 되는 TELNET과 FTP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은 신문마다 인터넷이란 기사가 없으면 이상할 정도로 꼭 일주일에 몇번은 지면을 활용해서 실고 있다. 하지만, TELNET과 FTP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조금 말하면 구식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컴퓨

朔風

미국인 무작정 따라하기

취업철이다.

매년 이때쯤이면 대학은 온통 TOEIC, TOEFL 플래카드가 낙엽을 대신한다. 모든 기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높은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눈치빠른 재학생이라면 우수한 성적표가 곧 좋은 입사와 직결되는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 터이다.

안타깝게도 대개의 기업체들은 영어 실력이 다른 모든 실력을 잘 나타내주는 가장 적절한 기준이라고 믿고 있다. 전공과 영어의 요구에서 전공의 선별력은 학점이 얼마 이상이면 모두 동일하므로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은 아예 3학년 전후로 영어에 목을 맨다. 뿐인가, 면접의 무사통과를 위해 면접기술(?)을 터득하느라 여념이 없다. 모의면접 시험장에서 많은 수의 학생들이 마치 상대를 일격에 격퇴시킬 '비기'를 연마하듯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신입사원이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전체의 근간에는 기업체의 성패가 마케팅에 달려있다는 신념(?)에 있다.

제품이 시원찮더라도 용맹스런 영업사원의 '돌격앞으로' 전술과 '땀뿡' 광고전략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경쟁업체를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인이 많기에 그렇다. 물론 유능한 영업사원이란 다양한 외국어 실력, 화려한 말주변, 세련된 매너 등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기에 많은 사원들에게 이러한 기초(?)능력을 입사때부터 바라는 것일게다. 어쨌든 이 때문에 우리 풍토에서는 진짜 신기술, 신개념 그 자체로는 승부가 안되는 것 일는지 모른다.

자기 전공에 대한 뛰어난 재능과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TOEIC실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대학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고개를 든다. 우수한 기업체나 연구소의 인재 선발과정에서 학생들의 학부,

대학원과정의 결과물이나 지도교수의 평가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한다면 대학의 기능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채용방식은 대학의 교육마저 왜곡시킬 위험성을 내포한다. 대학에서 어렵게 가르친 내용은 모두 뚝뚝으로 밀려나고 기업에서는 막대한 인력과 재원을 들여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입사원 연수부터 새로운 경영개념과 기법, 과학기술의 중요성 보다는 일당 백의 판매정신을 가르친다. 간부들의 대화에서 전자가 사라진지 오래다. 모든 것이 정치적 판도변화와 상대의 전술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개뿔을 금할 길이 없다.

신입사원 선발에서 영어능력을 묻는 것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로 인해 대학인들이 배워야 할 전공과 교양이 부실해지거나 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이다. 주위를 둘러보자. 과연 영어를 몰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몇이나 될 것인가. 영어와 면접의 황상에서 벗어나자. 10분 면접으로 한 인간의 잠재된 능력과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다면, '이런 관상의 여자가 바람을 편다'는 주관지 기사만 보고도 여성을 보는 관점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칼라면적으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영어 잘 하는 사람만이 우대받는 사회라면 결국 백년이 지나도 우리는 순 국산부품으로 구성된 자동차와 향후 컴퓨터기술의 핵심인 64비트 칩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대학졸업자라도 영어에 서툴 수 있다. 하나 전공실력이 빈약한 것은 큰 죄악이다. 기업체를 역시 미국인 흉내 잘 낸다는 이유로 그 죄인들을 용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과 기업이 합심해 전국의 모교를 TOEIC, TOEFL의 깃발을 걸어나야 한다.

(故句尾)

경희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출연금의 많고 적음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민관동(외국어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출연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백50만원
반드시 세계일류대학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배재석(외국어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1백50만원
●기탁자 명단은 접수순입니다.(1996.11.1~1996.11.30)	△김기국(외국어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수)
△(주)삼성전자, (주)삼성데이터시스템 경희대 Cyber park기증 1억원 상당-펜터엄 데스크탑 컴퓨터 14대, 인터넷 화상회의 장비 2세트 외 4종	1백50만원
△오세덕(법과대학 행정학과 교수, 4차분)	
3백만원	●바로 잡습니다
	△김종희(문리대 국문과 교수)
	1백만원
	△김재홍(문리대 국문과 교수)
	2백만원
	△박재영(문리대 국문과 교수)
	1백만원
	△김서영(문리대 수학과 교수)
	2백만원



사람, 사회, 미래를 위한 가치경영

AMINET

http://www.aminet.co.kr

인터넷 전용서비스라 훨씬 빠른 인터넷-아미넷
PC통신망으로 빙빙 돌아 연결되는 굴뚝인터넷이 아닌
인터넷 전용서비스가 가장 빠르고 쉬운 아미넷-
초특급 인터넷, 아미넷으로 정보직행로를 비행하십시오.

인터넷 직행로, 아미넷

AmiNet은 초특급 인터넷 통신서비스입니다.

전용서비스니까 접속은 바로바로, 검색은 빨리빨리!
아직도 촌스럽게 PC통신으로 인터넷하는 원시인이 있나?
아미넷은 오직 인터넷만을 위한 서비스니까 마우스를 잡는 순간이 바로 세계와 만나는 순간- 아미넷과 함께라면 당신은 출항한 사나이!

싸이버 세대는 Cyber City로 모여라!
채팅이면 채팅, 게시판이면 게시판-
PC통신에 있는 건 다 있으면서도 토요일 밤 12시에
정해없이 생생 돌아가는 알찬 통신서비스, Cyber City-
아미넷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킁카, 킁카들이 줄줄-
동호회에서 자료실까지 딱한 서비스는 여기 다 있다!
http://www.aminet.co.kr

인터넷 무료교육

- 입사: 매주 화, 수, 목 오후 1:30~5:30(4시간)
- 장소: 신사동 아미넷 교육장
- 신청방법: HELP DESK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현대정보기술주식회사

■아미넷 HELP DESK: 서울시 종로구 적성동 68번지 현대전자빌딩
TEL: 720-1140 FAX: 723-1140